

열방을 향해 세례를 베푸는 교회되게 하소서!

마태복음 28:18-20

스미스 채플에서 지난 7 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게 가장 큰 기쁨을 준 순간은 무엇이였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세례였습니다.

아쉽게도 세례를 많이 베풀지는 못했지만... 누군가에게 세례를 줄때마다... 그 순간은 정말 특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거룩한 시간... 한 영혼이 돌아올때 천국이 환호성을 지른다고 하잖아요?

특히 잊을 수 없는 일은 약 4 년 전 피터의 장례식을 통해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맛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그 장례식을 통해 무려 다섯 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장례식을 통해 다섯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순간들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많은 세례를 베풀고... 더 많은 영혼이 예수님께 "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며,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은 **마태복음 28:18-20 절** 말씀에 집중해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지상 대명령이라고 알려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8-20)

오늘은 여기서 단 한 단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먼저, 이 질문을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그 대답은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7 세기 주석가 매튜 헨리는 세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로 행해지며,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늘의 권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를 베푸는 것에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이름으로 베풀라고 하나요? 제 이름이나 여러분 이름, 혹은 교회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3:15 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본을 보이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의 길을 가기 위해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물며, 죄 많고 깨어짐 투성이인 우리는 어떻게 세례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고, 길되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뒤따라오는 질문은 그러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의 당위성을 얘기했다면, 세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표징(Sign)**과 **수단(Means)**

첫째로, 세례는 ‘**표징**’ 또는 ‘**싸인**’입니다. 무엇을 ‘싸인’이라고 하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현실 세계에 보이도록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싸인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 결혼 반지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단순한 금속 조각인데 이 반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이 반지가 뭐길래 말이죠.

사실 반지 그 자체가 결혼은 아니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반지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심오한 의미 즉, 결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반지를 통해 나는 결혼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과 나는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 반지끼인 사람을 넘보지 마라. 이런 의미도 있지요.

세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세레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지만, 세레라는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대에 ‘세레’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종교 의식 차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용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자주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세레를 베풀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의식을 치루라는 의미가 아니었던 거지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 제자가 되게 하라! 내가 초대하는 이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게 하라! 이 세상을 거꾸로 뒤집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라!”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레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초대에 마치 공개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7 세기 인물이었던 매튜 헨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모든 민족들을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입대시킨다.” 그러니까 그는 마치 세례가 일종의 **영적 군대**에 등록시키는 것과 같다고 본 것입니다. 세상 군대는 입대한 사람들에게 군복을 나눠주고 군대 질서에 따르게 한다면, 세례를 통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수건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 온 걸 환영합니다! 당신에게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또 한가지 세례가 가진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세례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세례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라고 불렀습니다. 게일 펠튼은 이것을 더 심플하게 말합니다. **“세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In baptism, God works!”**

디도서 3:5-6 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종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로마서 6:4 도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유아세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듣거나 우리 스스로도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아기를 세례 주나요?”

“아기한테 과연 믿음이 있을수 있나요?”

“아이가 좀 더 자라서 자기가 믿는게 뭔지 좀 이해할 때 세례를 주는게 맞지 않나요?”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게 틀린말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 유아세례가 담고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안 전통에서 말하는 **선행하시는 은혜 Prevenient Grace** 입니다—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고,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만해서 받은 분 계신가요? 세례를 받을만해서 받은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도행전 2:38-39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바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 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세례는 나의 능력, 나의 자격,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며, 또 그분의 신실하심이 세례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세례와 관련해서 **유의할 점**도 있지요. 그것은 세례가 천국 가는 프리패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은 아기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았어! 너는 이제 천국행이야!”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아들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엄마, 아빠가 잘 도와줄게.” 그래서 유아 세례 후에도 가정예배, 제자훈련,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컨퍼메이션, 등등 신앙 훈련을 계속 시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심어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잘 자라나도록 아이를 돌보고 기도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른들이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았으니 “이제 다 끝났어요~”가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짜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점은 이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주체이시며, 그분이 관계를 시작하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6 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또다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시 세례 받아야 하나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산지 오래됐어요. 정말 후회할 짓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에베소서 4:5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니...” 세례가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지요. 우리는 너무 쉽게 약속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갈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조차도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가 돌아오면 용서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가 한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화해했다고 합시다. 다시 결혼식을 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저 “잘못을 구하고, 결혼식 때 했던 서약을 되새기며, 그것을 다시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지키며 살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항복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통은 그런 분들에 대해 세례를 다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갱신 re-affirmation**” 하는 예식을 가집니다.

물에 자신의 손을 적시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갔었네요. 하지만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의 인내심, 신실하심, 변치않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제가 주님의 것이라고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례가 하나님의 일하심이기도 하지만, 그 일하심 속에서 **세례는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우리 집안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이 혹시 있을까요? 엄마 혼자서 집안일 다하고, 밖에서 돈 벌어오고, 애들을 돌본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있지만 이 남편은 어찌된 영문인지 집에서 잠만자고, 놀기만합니다. 애들도 나이가 이제 십대, 이십대인데 자기 손가락 하나 놓을줄도 모른다고 해봅시다. 그런 집은 정상이 아니겠지요?

제대로된 집은 서로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집안 청소도 같이 하고, 경제적 부담도 같이 지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두 사람, 혹은 어떤 소수의 무리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와 자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량과 달란트를 신실하게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제대로된 교회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1 절 말씀이 그것을 너무 잘 설명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엳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 옛 습관을 청산하고, 거룩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각자의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도 돌아와봅시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의 내용이 이러지요.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20)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신 건가요? 목사들에게만 주신건가요? 장로들에게만 주신 건가요? 아니면, 소수의 어떤 특별한 위치나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건가요? 아니지요! **모든 제자들—즉, 세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자 당부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듣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향해, 온 열방을 향해 세례를 베풀라.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자다!라고 세상에 보여주는 상징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자다라고 어떻게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반지를 늘 끼고 다니시잖아요? 그거 함부로 뺏다가 부부싸움나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영적 결혼 반지를 매일 끼고 다니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아, 저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향기가 나구나!’ 얘기할 수 있나요?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세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고, 소위 나쁜 사람이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 **선행의 은총**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요.

그 은혜가 지금도, 매일의 삶속에서 느껴지는지요?

깨달아지는지요? 아니, 가면 갈수록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 알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세례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근 태어난 아이를 세례를 주기로

해서 세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싶었던게 한가지구요. 다른 하나는 더 근본적이고, 또 더 간절한 이유입니다.

최근 교회 인근에서 사시는 어떤 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분 집에는 아주 아름답고 **특별한** 수영장이 있습니다. 특별하다고 한 이유는 그분이 자신의 수영장을 오픈해서 세례식을 거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수십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수영장에서 세례를 베푸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세례를 줄 사람이 없네요...**” 그 전화 통화를 끊고는 한동안 마음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한지 이제 7년이 넘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난 사역을 돌아볼 때, 정말 제 마음이 기쁘고, 내 심장이 뛰게했던 것은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때라고 말씀드렸지요. .. 그런데 현실은 세례를 베풀게 열 손가락도 안된다는게 참 마음이 무겁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세례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차원보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꿈을 꾸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가 뜨문뜨문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상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할줄 믿습니다. Great Falls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려와 함께 세례를 베풀며, 이 아이를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녀로 키우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부모들이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세상 문화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만 오고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되길 믿습니다. 그 꿈을 저는 꿈니다. 그리고 이 꿈이 단순히 저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 우리 모두의 사명,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이 꿈은 바로 우리 주님의 꿈임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 우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세례를 베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꿈이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싸인이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수단이라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사명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스미스 채플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세례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주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담대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주여,
다시 역사하시옵소서. 아멘.